

GCF 이사회 사무총장 선출

2016.10.13, 송도 - 녹색기후기금(GCF) 이사회가 GCF 사무국을 이끌어 갈 차기 사무총장으로 하워드 뎀지(Howard Bamsey)를 최종 선택했다. 사무총장 선출은 제14차 GCF 이사회 기간 중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, 신임 사무총장 최종 선발이 있기까지는 광범위한 글로벌 인재 채용과정이 진행되었다.

호주 출신인 하워드 뎀지 신임 GCF 사무총장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(Global Green Growth Institute)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으며, 수십 년 간 국제 기후변화, 환경,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 외교 일선 및 학계에서 경력을 쌓아왔다.

2006년부터 이듬해까지는 기후변화 장기협력행동 유엔 대화(United Nations' Dialogue on Long-term Cooperative Action on Climate Change) 공동의장,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호주 기후변화·에너지효율성 차관 및 기후변화 특사를 역임했다. 이 외에도 다양한 고위급 정부 관료직을 지냈다.

GCF는 지속가능과 빈곤퇴치의 맥락에서 개도국의 저배출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. 신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인천시 송도에 있는 사무국을 이끌게 된다.

※ 원문 출처 = <http://www.greenclimate.fund/-/gcf-board-selects-howard-bamsey-as-executive-director-of-the-secretari-1?inheritRedirect=true&redirect=%2Fhome>